

국내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

서문경¹⁾ · 이숙자²⁾ · 장성옥³⁾ · 이수정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웹사이트 관련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등 인터넷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 및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정보의 제공, 검색, 및 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건강관련 웹사이트는 광범위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한 맞춤형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웹상의 가상공간을 통한 개인적인 상호작용 및 사회적인 지원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직접 의료전문가를 접촉하지 않고 건강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편리함을 부여한다(Gagliardi & Jadad, 2002; Seomun, Lee, S. J., & Lee, S. M., 2004; Ryu et al., 2002).

그러나 건강관련 정보 분야에서 웹사이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 또는 불완전한 건강정보의 유통, 그리고 이들의 오용으로 인한 질병 악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웹사이트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와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련 웹사이트들의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Baker, Wagner, Singer, & Bundorf, 2003; England Micholls, 2004; Seomun et al., 2004).

웹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질병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전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수준의 자료들의 집합인 건강정보를 아무런 여과 없이 일반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건강정보를 통해서 얻는 이득만큼, 그만큼의 치명적인 손실 또한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Barnes & Vidgen, 2001; England & Micholls, 2004; Gang, Kim, Tak, & Hyun, 1999; Impicciatore, Pandolfini, Casella, & Bonati, 1997; Kunst, Groot, Satte, Latte, & Khan, 2002) 및 관련 사례(HONcode,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eHealth Code of Ethics, Health Internet Ethics, Guidelines for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에서 웹상의 건강정보사이트와 건강정보를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항목들을 수집한 Ryu 등(200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정보 관련 메타데이터로 활용시 크게 9개 영역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이는 웹사이트의 대상 및 목적, 책임자 명시, 정보의 출처 및 수집과정, 갱신일자 명시, 내용의 질 보장과 질 관리 방법, 광고 및 후원에 관한 명시, 개인정보 보호, 디자인 및 구조, 피드백, 공지 및 경고, 그리고 법령준수 등(Ryu et al., 200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에서도 건강관련 웹사이트의 질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건강정보사이트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hin, Seong, Kim, Koh와 Woo(2000)의 간염관련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 인터넷 의료정보의 적절성 평가를 한 것과

주요어 : 치매, 웹사이트, 평가

* 본 연구는 2004년도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연구소 연구기금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3)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4)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조교수

투고일: 2005년 3월 11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13일

Ryu 등(2002)의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Kim, Kim, Ko와 Kang(2003)은 목적성, 내용의 적절성, 권위성, 신뢰성, 상호작용성, 용이성, 지속성의 기준을 가지고 고혈압사이트를 평가분석 하였고, Yoo와 Jang(2003)은 주로 내용분석에 초점을 두어 목적성, 유용성, 정확성, 신뢰성, 권위성으로 인터넷 금연정보 사이트 내용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Seomun 등(2004)은 친식관련 웹사이트 평가에서 웹사이트의 기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웹사이트 구축성, 웹사이트 운영성, 웹사이트 접근성, 그리고 웹사이트 내용성의 4영역을 평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건강관련 웹사이트들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가 최근 들어 생겨나는 이유는 Ryu 등(2003)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분석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은 77.9%를 넘어섰고(2001년 기준), 인구 중 64.1%(2861만명)가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응답자 중 84.4% 이었고, 월 1회 꾸준히 이용하는 경우는 73.2% 이었으며,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로는 검색엔진에서, 55.1%, 포털사이트 이용, 30.7%, 건강정보 사이트로 바로 찾아감, 11.3%,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하는 것이 1.6%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신환경의 발전과 인터넷의 이용목적 중에서 건강정보 검색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웹상에서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의 한 영역을 맡고 있는 간호정보의 한 영역으로 사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련 웹사이트의 질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관련 정보 웹사이트의 질 평가 중 치매관련 웹사이트를 선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치매노인은 1996년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3.4%(145,144명)에서 2020년에는 4.0%(396,868명)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되며(Suh & Oh, 1996),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은 예방사업,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 재가 및 시설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재가복지서비스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도 적합한 방안중의 하나로 사료되어져 왔다. 이러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적절한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치매예방과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환자 관리와 증상 관찰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차원의 많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

료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치매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신뢰로운 웹사이트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써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국내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현황을 분석한다.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국내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를 평가한다.

용어의 정의

-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현황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치매관련 기관들의 웹사이트 125개와 국내의 대표 검색엔진인 구글, 야후, 엠파스, 네이버 등 4개의 검색사이트에서 [치매]를 검색하여 나오는 웹사이트 450개 중에서, 이중 URL이 불분명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나 운영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를 제외하고 치매 건강정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치매정의, 종류 및 증상, 진단, 치료과정, 치매간호 및 예방법,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선정된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는 현황분석을 통하여 최종 선택된 13개의 치매관련 웹사이트의 건강정보 평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eomun 등(2004)이 사용한 건강정보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구축성, 웹사이트 운영성, 웹사이트 접근성, 웹사이트 내용성 등 4영역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치매관련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치매관련 기관들의 웹사이트와 일반인이 많이 접하는 국내의 대표 정보 검색 사이트 중 치매관련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사이트의 구축성, 운영성, 접근성, 그리고 내용성을 평가한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 및 기간

국내 건강관련 웹사이트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치매 관련 기관들과 일반인이 많이 접하는 국내의 대표 검색엔진 중 치매관련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1차 검색은 2004년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 동안이었고, 2차 검색은 2004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 동안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을 위한 웹사이트 선정은 최종적으로 13개 기관의 웹사이트가 선정되었는데 이들을 운영주체와 기관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치매관련 민간단체 웹사이트 2개, 연구기관 웹사이트 2개, 공공기관운영사이트 3개, 의원급 웹사이트 1개, 노인전문병원 웹사이트 2개, 전문요양원 웹사이트 3개로 나타났다<Table 1>.

분석도구 및 분석방법

건강정보 평가도구는 Seomun 등(2004)이 천식관련 웹사이트 평가분석에서 사용한 건강정보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평가도구의 내용은 4인의 연구자와 웹관련 전문가 1인의 공동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평가기준은 평가도구의 목적성, 적절성, 정확성, 용이성, 권위성, 환류성, 지속성 등 7개 기준으로 모두 '매우 중요함' 또는 '중요함'의 의견을 보여 Seomun 등(2004)이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치매관련 웹사이트 건강정보 분석방법은 4인의 연구자와 웹관련 전문가로서 10년 경력의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1인, 치매관련기관에서 15년동안 환자간호에 종사한 전문가 1인 등 총 6인이 독립적으로 13개의 웹사이트를 평가하여 수렴한 결과의 점수를 기술 통계분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간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외국의 Medical Library Association에서 'Top 10 Most Useful Web Sites'로 선정된 두 개의 사이트 Healthfinder(www.healthfinder.gov)와 Quitnet(www.quitnet.com)의 내용을 그 연구자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각 항목의 의미와 점수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한 것에서도 적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따랐다. 도구의 내용은 크게 4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웹사이트 구축성(사이트 운영정책, 사이트 권위성, 신뢰성), 웹사이트 운영성(사이트의 상호 작용성, 지속성, 연계성), 웹사이트 접근성(사이트의 접근 용이성), 그리고 웹사이트 내용성(사이트의 목적성과 적절성) 등으로 총 26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은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로 측정되며 0점은 전혀 기술되거나 암시하지 못하는 경우, 1점은 기술되어 있으나 형식적이어서 전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2점은 기술되어 있으나 추상적이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경우, 3

점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0-3점의 4점 척도화 하였다. 본 척도를 적용한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관련 웹사이트의 품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1단계는 건강관련 기관 웹사이트와 일반 포털 정보사이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건강관련 기관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은 치매관련 웹사이트 125개와 국내의 대표 정보 검색 사이트인 구글, 야후, 엠파스, 네이버 등 4개의 검색사이트에서 [치매]를 검색하여 나오는 웹사이트 450개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URL이 불분명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나 운영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사이트를 제외해보니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는 109개, 일반 포털 정보사이트는 433개가 1차적으로 분석되었다. 2차 선정은 웹사이트 중에서 치매 관련 사이트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본 연구진(연구자 4인,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1인)이 판단한 사이트로서 보건복지부에 인가된 치매관련기관 8개 기관과 일반 정보 검색 사이트 11개 기관 등(중복 2개 기관) 총 17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17개 치매관련 기관 중에서 웹 사이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의견수렴기전(QA, 게시판, 방명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4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웹사이트가 선정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이 13개의 웹사이트의 건강정보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현황

치매관련 웹사이트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1단계는 건강관련 기관 웹사이트와 일반 포털 정보사이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건강관련 기관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 인가를 받은 치매관련 의료·복지시설·기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웹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평가대상이 된 치매관련 웹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웹사이트 25개, 주간보호시설 웹사이트 23개, 그룹홈 웹사이트 1개, 단기보호 기관의 웹사이트 14개, 간병인파견기관 웹사이트 10개, 무료치매전문요양시설 웹사이트 14개, 상담기관 웹사이트 5개, 실버·유료 입소 시설 웹사이트 30개, 치매 종합 상담기관 웹사이트 3개 등 총 125개 기관의 웹 사이트를 분석하였다. 125개의 기관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은 웹사이트가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106개 기관이 1차 연구 대상이었다. 106개 웹사이트 중에서 치매관련 웹사이트 평가에 적당한 내용으로 선정한 치매 정의, 종류 및 증상, 진단, 치료 과정, 치매 간호 및 예방법,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

여 2차적으로 8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106개 기관들의 대부분은 치매관련 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나 노인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각 기관의 이용안내, 기관소개, 사업안내(프로그램), 일반 자료실, 후원 등의 메뉴 등을 통해 기관 시설의 이용과 사업 내용에 대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선정된 8개 기관은 전문병원 3개, 단기보호시설 1개, 무료치매전문요양시설 1개, 유료 입소 시설 1개, 치매 종합 상담기관 2개 등 이었다.

일반정보 검색사이트에서 치매관련 웹사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대표 정보 검색 사이트인 구글, 야후, 엠파스, 네이버 등 4개의 검색사이트에서 [치매]를 검색하여 나오는 웹사이트 랭킹 순위로 각 검색사이트 당 100~150 순위의 웹사이트 450개를 일차적으로 검색하였으며, 이 중에서 URL이 불분명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나 운영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17개 사이트를 제외하고 총 433개의 웹사이트를 1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433개의 웹사이트의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요양병원(정신병원포함), 전문요양시설에서 치매 관련 안내에 대한 것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각 개인의원(신경과, 신경정신과, 한의원 등) 사이트 9.9%, 의료관련 상업 사이트 9.2%였으며, 치매관련 협회(민간단체 포함) 6.5%, 치매 관련 연구 기관 및 학회는 5.8%이었다. 치매 관련 게시물이나 자료가 있는 공공기관은 보건소 관련 사이트가 2.3%, 건강관련 연구기관이 2.1%에 불과하였다. 433개의 웹 사이트 중에서 치매관련 웹사이트 평가에 적당한 내용으로 선정된 치매 정의, 종류 및 증상, 진단, 치료 과정, 치매 간호 및 예방법,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이 포함되는 등 웹 사이트의 목적성을 평가하여 2차적으로 11개를 선정하였다. 11개 기관의 웹사이트는 치매관련 협회 4개, 연구기관 및 학회 3개, 공공기관 사이트 2개, 노인요양병원 및 전문요양시설 2개이다.

1단계 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인가된 치매관련기관의 웹사이트와 일반 정보 검색사이트에서 치매관련 사

이트를 분석한 웹사이트 중에서 치매 관련 사이트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본 연구진(연구자 4인,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1인)이 판단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 인가된 치매관련기관 8개 기관과 일반 정보 검색 사이트 11개 기관 등(중복 2개 기관) 총 17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17개 치매관련 기관 중에서 웹 사이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의견수렴기전(QA, 게시판, 방명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4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웹사이트가 선정되었다. 13개 기관을 운영주체와 기관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치매관련 민간단체 웹사이트 2개, 연구기관 웹사이트 2개, 공공기관운영사이트 3개, 의원급 웹사이트 1개, 노인전문병원 웹사이트 2개, 전문요양원 웹사이트 3개로 나타났다<Table 1>.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는 최종 선정된 13개의 치매관련 사이트로서 아래의 4영역에서 평가하였으며 최고 점수 50점부터 최저 점수는 27점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었고, 평균 38점 이상 받은 기관은 5개 기관(38%)에 불과하였다<Table 2>.

● 웹사이트 구축성

웹사이트 구축성을 살펴보면 구축성 평가점수는 6개항목으로 총점 18점에서 5-13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사이트의 구축성에 대한 평가는 사이트의 운영정책, 권위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정보제공자 표시와 연락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왔다. 평가 기관 중 개인보호정책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5개 기관이었으며, 8개 기관에서는 개인보호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사이트의 권위성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표시와 전문성에 관한 항목으로 정보제공자 표

<Table 1> Websites and URSS

(N=13)

Website	URL
Alzheimer's Association, Korea	www.alzza.or.kr
Alzheimer's Disease Center in Korea	www.geocities.com
Chojeong Hospital	www.grandmahospital.co.kr
Community Mental Health Supporting Committee	mentalhealth.kihasa.re.kr
Edenwon	www.hyosarang.or.kr
Eunhye Hospital	www.eunhyehospital.com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www.elderlynp.co.kr
Korea Dementia Association	www.thedementia.co.kr
Seongam	nanum.boeun21.net/code/community/center
Seoul Dementia Consulting Center	www.alz.or.kr
Sesem Silver Town for Dementia	www.sesem.org
Sungjiwon	www.sungjiwon.or.kr
The Korean Association for Dementia	www.silverweb.or.kr

국내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

<Table 2> Evaluation of the dementia information providing sites by Web Evaluation Criteria (N=13)

Domain	Major Classification	Evaluation Categories	A	B	C	D	E	F	G	H	I	J	K	L	M	
Website Construction	Operating Policy	protection policy of individual information	1	0	0	0	0	0	0	2	2	2	0	0	2	
		Authority	author notice	2	1	0	1	0	0	1	0	0	1	0	0	2
	Confidence	author contact information	3	3	1	1	0	0	0	0	0	0	0	0	0	0
		author authority	1	1	1	2	1	1	2	1	1	2	1	1	2	
		organization guide	3	3	2	2	2	2	2	3	2	3	2	2	3	
		organization contact information	3	3	2	3	2	2	2	2	1	2	2	2	3	
		Mean	2.2	1.8	1.0	1.5	0.8	0.8	1.2	1.3	1.0	1.7	0.8	0.8	2.0	
Website Operation	Interactivity	administration contact information	3	3	2	3	2	2	2	2	1	3	2	2	3	
		opinion gathering	3	0	3	3	3	3	3	3	0	2	2	2	3	
		opinion gathering(FAQ)	0	0	0	0	0	1	0	3	0	0	0	0	0	
	Continuance	production date notice	0	2	0	1	0	0	0	0	0	0	0	0	1	
		renovation date notice	0	2	0	0	1	0	0	0	0	0	0	0	0	
		latest information date notice	1	2	2	2	1	2	2	3	2	2	2	2	3	
	Connection	external links	3	1	1	3	2	1	2	2	2	3	0	0	3	
internal links		3	1	1	2	2	2	1	2	2	2	1	2	2		
Mean	1.6	1.4	1.1	1.8	1.4	1.4	1.3	1.9	0.9	1.5	0.9	0.9	1.0			
Website Accessibility	Easiness	site map/outline	3	0	2	3	2	2	2	2	0	2	2	2	0	
		manual/help guide	1	0	0	0	0	0	0	0	0	0	0	0	0	
		searching function	0	0	0	1	1	1	1	1	1	1	1	1	1	
		name of website	2	1	2	2	2	2	2	2	2	2	2	2	2	
		URL/Domain name	2	1	1	2	2	2	2	2	1	3	2	2	2	
	Mean	1.6	0.4	1.0	1.6	1.4	1.4	1.4	1.4	0.8	1.6	1.4	1.4	1.0		
Website Content	Purpose	object	3	2	2	2	2	2	2	3	2	3	2	2	3	
		client	2	1	2	2	2	2	2	3	2	2	2	2	3	
	Appropriateness	subject	2	1	2	2	1	2	2	2	1	2	1	2	2	
		expression method of content	1	1	2	1	1	1	1	2	1	3	2	1	2	
		range/depth of content	2	2	1	2	1	2	2	3	1	2	1	1	3	
		consistency of content	3	1	1	2	2	2	2	2	2	3	1	1	3	
		correctness of content	1	1	1	2	1	1	1	2	1	3	1	1	2	
		Mean	2.0	1.3	1.6	1.9	1.4	1.7	1.7	2.4	1.4	2.6	1.4	1.4	2.6	
Total Sum	48	33	31	44	33	35	36	47	27	48	29	30	50			
Total Mean	1.8	1.3	1.2	1.7	1.3	1.3	1.4	1.8	1.0	1.8	1.1	1.2	1.9			

시가 된 6개의 사이트에도 정확한 저자 표시보다는 정보 출처 정도를 밝히는 정도였으며, 정보제공자 연락처는 2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11개 기관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이 제시되는 부분이다.

● 웹사이트 운영성

웹사이트의 운영성을 살펴보면 8개 항목으로 총 24점에서 7점- 15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사이트의 운영성에 대한 평가는 상호작용성, 지속성, 연계성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13개의 사이트가 메인 화면에서 관리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었다. 의견수렴기전(QA, 게시판)은 11개 기관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2개 기관에는 없었다. 즉, 대부분의 사이트는 관리자 연락처, 의견 수렴 기전으로 상담실이나 게시판 운영으로 치매와 관련된 상담 메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의견

수렴기전 중 FAQ를 운영하는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는 사이트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이트 지속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점수가 낮았는데 이중 제작 일을 표시한 기관은 3개였고, 최종 갱신 일에 대한 표시는 2개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제시되지 않았다. 치매 관련 사이트에서는 관련 복지기관, 치매협회, 치매학회 등에 대한 외부 링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 웹사이트 접근성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5개 항목으로 총 15점으로 2-8점의 낮은 분포를 보여주었다. 접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이트에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평가로서, 사이트 맵과 사이트 개요 부분에서는 11개 기관에

서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용법/도움말 기능은 1개 기관을 제외하고 없었다. 사이트 전체에서 해당 정보를 찾는 검색 기능을 가진 사이트는 없었으며 상담실과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검색기능은 10개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적절하다' 이상으로 평가된 웹사이트는 없었으며,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가진 기관은 8개 기관이었으나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웹사이트 내용성

웹사이트 내용성을 살펴보면 7개 항목으로 총 21점으로 9-18점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내용성에 대한 평가는 사이트의 목적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성에 대한 평가와 내용에 맞는 주제와 대상에 대한 적절한 표현방법, 내용의 범위나 깊이, 내용의 일관성, 내용의 정확성 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사이트 대상을 명확히 한 사이트의 경우는 내용의 표현에서도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았으나, 사이트 대상이 모호한 경우 내용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내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 목적

웹사이트 구축에서 목적은 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존재하는 이유가 정확히 이용자에게 전달되도록 공식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목적이 기술되어 있지 못하다면 정보를 대하는 이용자도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내용 평가항목에서 3점은 "목적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음"으로 4개의 사이트에서 보여졌으며, 목적이 정확히 기술된 위의 4개 기관 사이트의 내용성 평가는 모두 평균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2점 "목적에 추적 표현이 많아 이해 어려움"은 9개 기관이었고, 1점 "목적이 형식적이고 찾기 어려움"과 0점 "목적에 대한 기술 없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었다.

● 웹사이트 대상

사이트의 대상은 사이트 목적이 적절히 표현되었을 때 구체화되고 어떤 이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이트 구축의 중요한 문제이며 지속적인 사이트 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3점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2개였으며, 2점 "대상의 분류가 추상적으로 명시"는 대부분의 사이트인 9개에 해당되었다. 1점 "대상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음"이 1개 사이트였고, 0점 "대상자 명시 없거나 모름"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없었다.

● 웹사이트 주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주제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목적이 정확히 기술된 뒤에 제공하는 내용의 범위나 깊이가 사이트 목적에 적절인지 평가할 수 있다. 사이트의 정보는 치매관련 사이트의 특성에 적합하게 모든 자료와 게시물 등의 정보가 치매와 관련된 정보로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점 "정보의 내용이 모두 목적과 일치하고 필요한 내용인가"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없었다. 2점 "정보의 내용이 일부가 목적과 일치하고 필요한 내용인가"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9개였으며 1점 "정보의 내용이 거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사이트도 4개나 되었다.

● 대상에 대한 표현방법

대상에 대한 표현방법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용어가 일관되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3점 "대상 분류에 맞는 용어의 사용과 문장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에 1개의 사이트만이 해당되었으며, 2점 "대상 분류에 대체로 일치하는 용어의 사용과 추상적인 문장이 많음"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4개였으며 나머지 8개 기관은 1점 "대상 분류가 대체로 일치하는 용어의 사용과 용어의 표현이 어려움"에 해당되어 대상의 표현방법에 대한 수준의 통일, 명확한 대상자 분류가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0점은 "대상 분류가 일치하지 않고 용어의 표현을 이해할 수 없음"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이트는 없었다.

● 내용의 범위와 깊이

사이트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치매관련 전문가의 자문아래 치매의 필수적인 정보로 '치매 예방 및 발견', '치매 증상 관찰 및 관리', '치매 가족의 정서적지지'를 선정하여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의 기술 수준 깊이가 일정한 경우를 3점을 주었다. 2개 사이트에서 세 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2점은 위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2개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보 수준의 깊이가 일정한 경우이며 6개 사이트가 해당된다. 1점은 1개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보 수준의 깊이가 일정치 못한 경우로 5개 기관이었다.

● 내용의 일관성

정보 내용의 수준이 일관적인가를 조사하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인데, 일관성에 대한 평가 3점 "정보 내용이 화면마다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3개 기관이었으며, 2점 "정보의 내용이 화면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는 6개 기관이었으며, 4개 사이트에서 1점 "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일정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보임"을 나타내었다.

• 내용의 정확성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정확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여기서는 4인의 연구자가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한 것을 치매관련 전문가 1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3점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가”에서는 1개 기관이었고, 2점 “정보내용이 대체로 정확하다”는 3개의 기관이었고, 1점 “정보내용의 정확성이 의심스럽다”는 9개 기관으로 정보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치매관련 웹사이트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와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평가도구를 토대로 웹사이트 건강정보의 평가 및 여과를 하는 치매관련 건강정보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치매관련 예방지식이나 증상관찰, 치매관리와 같은 일차적 관리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건강관련 영역 중 치매라는 단일 주제에 대한 일회적 평가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웹사이트 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 및 관리라는 주제가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기 시작한 연한이 매우 짧아서 그에 관련된 충분한 양의 국내 연구결과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웹사이트 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못하고, 웹사이트의 건강정보 인증기관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 기준의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에도 연유한다(Kim et al., 2003; Seomun et al.,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는 인증기관의 설립, 전문가들의 의견 일치, 평가기준의 표준안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부터도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현재 국내의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치매관련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기타 관련기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125개의 치매관련 기관 중에서 평가를 위한 사이트는 단계적으로 8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이들 중 일부가 최종분석 단계인 13개 웹사이트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117개 기관들은 치매관련 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치매나 노인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이용안내, 기관 소개, 사업안내, 일반자료실, 후원 등의 메뉴를 통해 기관 시설의 이용과 사업내용에 대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중 19개 기관은 웹사이트

조차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Seomun 등(2004)의 친식 관련 웹사이트 평가에서 나타난 공공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친식과 관련된 자료가 거의 전무했었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웹사이트의 구축성에 대한 평가는 사이트 운영정책, 권위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사이트의 권위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왔다. 그 이유는 저자 혹은 정보제공자에 대한 표시, 연락처, 권위자에 대한 명시 부분으로 대부분의 사이트가 정보 내용에 대해 적절히 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Seomun 등(2004)와 Kim 등(2003)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는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웹사이트의 부적절성 때문에 대상자로 하여금 정보출처와 자료의 진실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신뢰성 평가는 사이트 운영 기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각 기관에 대한 소개를 분명히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도 Seomun 등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써 웹상에서의 정보의 신뢰도가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축성의 평가 점수는 총점 18점으로 5-13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대상 사이트들이 치매라는 특정 질환을 다루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다른 일반 건강관련 정보 사이트보다 운영에 대한 관리정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웹사이트의 운영성은 상호 작용성, 지속성, 연계성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총 24점에서 7점-15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관리자 연락처와 의견수렴기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나, 빈번한 질문에 대한 FAQ 부분에 대해서는 2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11개의 기관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 웹사이트 운영의 비효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부분은 Seomun 등(2004), Kim 등(2003), 그리고 Ryu 등(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점으로써 아직까지 건강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측면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지속성 평가항목은 13개 사이트 모두 좋은 평가를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게시판 갱신에 대한 부분만 모두 나타낼 뿐 사이트의 제작일시와 갱신 일자의 표시가 없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연계성 부분은 내부 링크는 대체로 잘되어 있으나 외부 링크가 5개 미만이거나 없는 곳도 있어 치매와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이나, 뇌졸중등의 다른 건강 정보 사이트들과의 링크가 부족하였다. 이는 이용자가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링크를 통해서 계속 획득할 수 있는 인터넷만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웹사이트 접근성은 사이트에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평가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는데 2003년 행정기관 홈페이지평가와 비교해보면 기존의 치매관련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접근성 부분이 많이 부족하였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고려한다면 사이트의 해상도와

이미지, 위치성, 내비게이션의 편의성, 심미성 등(Depart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2003)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되어야만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웹사이트 내용성을 알아보는 목적성과 적절성에서는 총 21점에 9-18점으로 점수 차가 컸다. 가장 심각한 부분이 적절성 중 대상에 대한 표현방법과 내용의 범위/깊이였는데 5개의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이트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용자의 지식수준이나 인지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치매관련 정보를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Ryu 등(2003)의 금연 정보 사이트 평가에서도 전문용어나 의학용어가 설명 없이 사용되어 금연에 실제적으로 도움 주기가 어렵다는 부분과도 일치하며 Seomun 등(2004)의 천식관련 웹사이트 평가에서도 내용성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상에 대한 표현방법과 내용의 범위와 깊이에 가장 점수가 낮아서 실제로 천식관련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다는 부분과 일치 한다. 더불어 치매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정보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치매정보 부재를 나타내었다. 또한 내용의 정확성 부분에서도 치매정보의 원 출처를 알 수가 없었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자료도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원 출처와 정보제공자를 밝혀서 신뢰성을 높여야 함이 지적되었다. 치매와 같은 건강정보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치매는 환자의 문제이자 가족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처럼 노령화를 앞두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질환으로 발생하는 뇌기능의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뇌 기능 저하 상태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치매가 병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며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관찰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건강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매를 돌보는 가족이나 일반인은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앞으로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건강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정보의 품질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형식의 정보는 그 특성상 누구든지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더구나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자칫 그 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을 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성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건강관련 웹사이트의 방향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인

증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신뢰적이고 질 높은 건강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터넷 건강관련 사이트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및 정부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치매관련 건강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여 건강정보의 활용을 적절히 유도하고자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건강정보의 품질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국내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치매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으로는 국내 건강관련 웹사이트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치매관련 기관들의 웹사이트와 일반인이 많이 접하는 건강사이트를 선정하여 1차 선정은 2004년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 동안 검색하였고, 2차 선정은 2004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 동안 실시하였다. 최종분석 대상 웹사이트의 선정은 1, 2 단계를 통하여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본 연구진이 판단한 13개 기관의 웹사이트를 선정되었다.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의 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치매관련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기타 관련기관의 웹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125개의 치매관련 기관 중에서 평가를 위한 사이트는 단계적으로 8개 기관에 불과하였고, 이들 중 일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치매관련 일반 정보 검색 사이트의 분석에서도 국내의 대표 정보 검색사이트인 구글, 야후, 엠파스, 네이버 등을 통하여 [치매]를 검색한 결과 450개를 평가하였는데, 이중 11개의 웹사이트만이 단계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양쪽에서 중복된 2개를 제외하면 17개의 웹사이트를 선정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17개 치매관련 기관 중에서 웹 사이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의견수렴기전(QA, 게시판, 방명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4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웹사이트를 선정되었다. 13개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주체와 기관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치매관련 민간단체 웹사이트 2개, 연구기관 웹사이트 2개, 공공기관운영사이트 3개, 의원급 웹사이트 1개, 노인전문병원 웹사이트 2개, 전문요양원 웹사이트 3개로 나타났다.

치매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를 살펴보면 최종 선정된 13

개의 치매관련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구축성(사이트 운영정책, 사이트 권위성, 신뢰성), 웹사이트 운영성(사이트의 상호 작용성, 지속성, 연계성), 웹사이트 접근성(사이트의 접근 용이성), 그리고 웹사이트 내용성(사이트의 목적성과 적절성) 등으로 총 2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8점 만점에 27-50점의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었고, 평균 이상 점수를 받은 기관은 5개 기관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앞으로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교육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건강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정보의 품질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형식의 정보는 그 특성상 누구든지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더구나 건강에 관련된 정보는 자칫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을 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웹사이트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Baker, L., Wagner, T. H., Singer, S., & Bundorf, M. K. (2003). Use of the internet and e-mail for health care information: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JAM*, 189(18), 2400-2406.
- Barnes, S. J. & Vidgen, R. (2001). An evaluation of cyber-bookshops: The WebQual method. *Int J Electron Commerce*, 6(1), 11-30.
- Chung, Y. C. & Park, H. A. (2000). Development of a health information evaluation system on the internet. *J Korean Soc Med Inform*, 6(1), 53-66.
-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2003). *Plan for the evaluation & selection of outstanding public administrative office websites*.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1-19.
- England, C. Y. & Micholls, A. M. (2004). Advice available on the internet for people with coeliac disease: An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websites. *J Hum Nutr Dietet*, 17, 547-559.
- Gagliardi, A. & Jadad, A. R. (2002). Examination of instruments used to rat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hronicle of a voyage with an unclear destination. *BMJ*, 324, 569-573.
- Gang, N. M., Kim, J., Tak, G. R., & Hyun, T. S. (1999). Criteria for the websites in Korean with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J Korean Soc Med Inform*, 5(1), 119-124.
- Impicciatore, P., Pandolfini, C., Casella, N., & Bonati, M. (1997). Reli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for the public on the world wide web: Systematic survey of advice on managing fever in children at home. *BMJ*, 314, 1875.
- Kim, J. E., Kim, E. S., Ko, I. S., & Kang, S. M. (2003). An evaluation study of hypertension information providing web sites on the internet. *J Korean Soc Med Inform*, 9(1), 45-52.
- Kim, J. (2004). *Survey on the issu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cs in Korea*. Available at: kosmi_p004CHI[1]. Accessed November 30, 2004.
- Kunst, H., Groot, D., Satte, P. M., Latte, M., & Khan, K. S. (2002). Accuracy of information on apparently credible websites: survey of five common health topics. *BMJ*, 324, 581-582.
- Ryu, S. W., Song, T. M., Ha, Y. K., & Lee, G. H. (2003). Development of gateway system for a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Korea Inst Health Soc Aff*, 19.
- Ryu, S. W., Song, T. M., You, D. H., Ha, Y. K., Shin, C. W., & Youn, J. Y. (2002). System development for filtering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Korea Inst Health Soc Aff*, 25, 18-34.
- Seomun, G. A., Lee, S. J., & Lee, S. M. (2004). Evaluation of Asthma-related Websites. *J Korean Soc Med Inform*, 10(3), 321-328.
- Shin, J. H., Seong, H. G., Kim, C. H., Koh, J. S., & Woo, K. H. (2000).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reliability of medical information on www in Korea through analysing hepatitis information. *J Korean Soc*, 6(3), 73-88.
- Silberg, W. M., Lundberg, G. D., & Musacchio, R. A. (1997). Assessing, controlling, and assuring the quality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JAMA*, 16(277), 1244-1245.
- Skinner, H., Biscope, S., & Poland, B. (2003). Quality of internet access: barrier behind internet use statistics. *Soc Sci Med*, 57, 875-880.
- Suh, M. K., Jung, Y. C., Oh, Y. M., & Lee, S. J. (2000). Analysis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Korea Inst Health Soc Aff*, 54, 9-63.
- Yoo, H. R., & Jang, Y. S. (2003). The content evaluation of tobacco cessation information on internet web-sites in Korea. *J Korean Soc Med Inform*, 9(4), 431-444.
- [on-line]
Available at: <http://www.hon.ch/HONcode/Korean>. Accessed November 3, 2004
Available at: 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 Accessed November 3, 2004
Available at: <http://jama.ama-ssn.org/cgi/content/full/283/12/1600>. Accessed November 3, 2004
Available at: http://www.safenet.ne.kr/introduction/rating_standard_detail.html. Accessed November 5, 2004
Available at: <http://www.healthfinder.gov>. Accessed November 5, 2004
Available at: <http://www.quitnet.com>. Accessed November 5, 2004

An Evaluation Study of Dementia Information Providing Websites in Korea*

Seomun, Gyeong-Ae¹⁾ · Lee, Sook-Ja²⁾ · Chang, Sung Ok³⁾ · Lee, Su Jeong⁴⁾

1)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3) Associati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4)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domestic website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dementia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mentia-related websites. **Method:**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elected 13 domestic websites that were available in November and December 2004, and evaluated them in terms of construction, operation, accessibility and contents on a scale 4 point (0~3). **Result:** The construction of dementia-related websites got 6~13 out of 18 points, which suggests that management policies for the operation of dementia-related websites are inadequate. The operation of dementia-related websites got 7~15 out of 24 points. In particular, all 13 sites got a low score in the aspect of continuance. With regard to accessibility, the sites were evaluated on how easily users could access the sites and they got 2~8 out of 15 points. In evaluating contents, the sites got 9~18 out of 21 points with regard to the purpose and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s. **Conclusion:** This shows that most sites did not provide diverse types of dementia-related information. Because it is highly advantageous to perform primary dementia-preventing management through websites, this study proposes to develop a websit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provide high quality dementia-related informatio.

Key words : Dementia, Internet, Evalua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Nursing Research Institute Grant,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2004).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eomun, Gyeong-Ae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5-Ka, Anam-Dong, Sungbuk-Ku, Seoul 136-705, Korea

Tel: +82-2-3290-4920 Fax: +82-2-927-4676 E-mail: seomun@korea.ac.kr